

『새한글성경』 구약 번역 해설 — 사무엘상하 —

배희숙*

사무엘상·하는 사건 중심의 서술이 특징인 이야기체(내러티브)로 되어 있으며 생동감 있는 서사 구조를 갖추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화법이 빈번하게 사용됨에 따라 구어체적인 표현이 두드러지는 특징을 보입니다. 특히 등장인물 간의 대화에서는 일상에서 관용적으로 사용되는 특정 표현들이 등장하며, 이는 성경 내러티브의 언어적 특성을 반영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본 소고에서는 그중 서원 및 맹세와 관련된 관용적 표현을 중심으로 『새한글』의 번역적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무엘상 1:26

1.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⁵

וְהִאמֵּר בְּיַ אֲדֹנִי חַי נֶפֶשׁ אֲדֹנִי אֲנִי הָאֲשֶׁה הַנְּאָבָת עַמְקָה בָּוָה
לְהַחְפִּילַל אֶלְיָהוּהָ:

『개역개정』

한나가 이르되 내 주여 당신의 사심으로 맹세하나이
다 나는 여기서 내 주 당신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
하던 여자라

『새번역』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제사장님, 나를 기억하시

* Universität Münster에서 구약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음. 현재 장로회신학대학교 구약학 교수. hsbae@puts.ac.kr.

		겠습니까? 내가, 주님께 기도를 드리려고 이 곳에 와서, 제사장님과 함께 서 있던 바로 그 여자입니다.
『공동개정』		한나가 엘리에게 말하였다. “ <u>사제님, 말씀드리겠습니다</u> ” 사제님께서 지금 살아 계신 것이 틀림없듯이 제가 바로 이전에 여기 사제님 앞에서 야훼께 기도를 드린 여자입니다.
『새한글』		한나가 말했다. “ <u>주제님은 말씀입니다만, 제사장님</u> , 제사장님의 목숨이 살아 있음을 걸고 말씀드립니다. 제가 바로, 이곳 제사장님 곁에 서서 여호와께 기도했던 그 여자입니다.
ESV		And she said, “ <u>Oh, my lord!</u> (<u>오, 나의 주여</u>) As you live, my lord, I am the woman who was standing here in your presence, praying to the LORD.
NET ²		She said, “ <u>My lord</u> . Just as surely as you are alive, my lord, I am the woman who previously stood here with you in order to pray to the LORD.
ZB		Und sie sprach: <u>Mein Herr</u> (<u>나의 주여</u>), so wahr du lebst, mein Herr, ich bin die Frau, die hier bei dir stand, um zum HERRN zu beten.
LB		Und sie sprach: <u>Ach, mein Herr</u> (<u>아, 나의 주여</u>), so wahr du lebst, mein Herr: Ich bin die Frau, die hier bei dir stand, um zum HERRN zu beten.
BB		Seine Mutter sagte: » <u>Verzeih mir, mein Herr!</u> (<u>부디, 나의 주여</u>) Bei deinem Leben, mein Herr: Ich bin die Frau, die damals neben dir stand und zum HERRN betete.

1.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어순

한나의 첫 마디 אָדָנִי (비 아도니)를 히브리어 순서 그대로 번역했습니다.

(2) 번역어

① 이(비)

『개역개정』 및 『새번역』, 그리고 NET² 및 ZB는 이를 아예 번역에서 생략하였습니다. 영어 및 독일어 성경에서 번역할 때는 대체로 ‘오’ 또는 ‘아’와 같이 감탄사로, 또는 ‘부디’나 ‘제발’로써 간청의 의미를 담았습니다. 『새번역』은 한나가 제사장 엘리에게 자신이 이전에 기도하던 여자임을 상기시켜주는 맥락을 반영하여 의역하였습니다. 반면 『공동개정』의 ‘말씀드리겠

습니다.’는 해당 관용구의 뉘앙스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번역으로 평가 될 수 있습니다.

② **אָדָן(아도니)**

이는 직역하면 ‘나의 주’를 의미하는 호칭입니다. 『개역개정』 및 영어·독일어 성경은 이를 그대로 번역하였습니다. 반면 『새번역』과 『공동개정』에서는 ‘제사장님’ 또는 ‘사제님’으로 번역되었는데, 이는 원문의 의미를 직역하기보다는 한국어의 화용적 맥락에 맞추어 의역한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어에서는 윗사람을 부를 때 이를 대신 직책을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1.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어순

한국어에서는 호격이 일반적으로 문장의 앞에 위치하지만, 『새한글』에서는 히브리어 원문의 어순을 유지하여 번역하였습니다.

(2) 번역

‘**אָדָן(비 아도니)**’, 이 표현은 상대방을 존중하며 자신을 낮추고, 공손하고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 때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출애굽기 4장에 나타나는데, 그에 따르면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는 소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지속적으로 거부합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강력한 말씀과 여러 증거를 제시하시며, 모세가 더이상 거절할 명분이 없도록 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여전히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거부 의사를 더욱 분명히 하고자 하며, 말재주가 없다는 이유를 들어 다시 한 번 소명을 감당할 수 없다고 호소합니다. 특히, 이번에는 **אָדָנִי(비 아도나이)**라는 표현으로 말을 시작하는데(출 4:10), 이는 그가 계속해서 거부해 온 만큼 더욱 정중한 간청의 의미를 담았다 하겠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는, 다윗이 나발의 집을 멸하려 할 때 이를 막기 위해 아비가일이 급히 달려와 다윗 앞에 엎드려 간곡히 간청하는 장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삼상 25:24). 아비가일은 다윗의 분노를 누그러뜨리고자 하며 **אָדָן(비 아도니)**라는 표현으로 간청을 시작합니다. 이는 상대방에게 공손하면서도 간절하게 호소하는 방식으로, 자신을 낮추어 상대의 궁흘과 용서를 구하는 정중한 간청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뉘앙스를 한국어의 ‘주제님은 말씀입니다만’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전달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1.4. 『새한글』 사무엘상 1:26의 가르침

(1) 사무엘상 1장은 구약성경에서 제사장과 여인이 직접 대화하는 유일한 장면을 담고 있으며, 이는 제사장과 여인의 대화가 당시 사회에서 이례적인 일이었음을 시사합니다. 이 장면은 두 개의 주요 서사 구조로 나뉩니다. 첫 번째 장면(1:9-18)에서는 제사장 엘리가 성소에서 기도하는 한나를 보고, 그녀가 술에 취했다고 오해하면서 시작합니다. 이에 한나는 자신의 심정을 토로하며 상황을 해명하고, 결국 엘리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이후 한나는 아들을 낳고, 서원한 대로 젖을 뱉어 사무엘을 하나님께 봉헌하기 위해 실로 성소를 다시 찾습니다. 두 번째 장면(1:26-28)에서는 한나가 먼저 엘리 제사장에게 말을 건넵니다. 그녀는 *בְּ אֱלֹהִים*(비 아도니)라는 표현으로 신중하게 입을 떠냅니다. 이는 단순히 제사장과 여인의 대화가 드문 상황이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그녀가 전달하려는 말의 민감성 때문이기도 할 것입니다. 한나는 자신이 바로 몇 년 전 엘리가 술 취했다고 오해했던 그 여인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엘리를 난처하게 만들 수도 있는 발언이었기 때문에, 한나는 신중하고 배려 깊게 대화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과거 브닌나의 조롱으로 인해 심기가 상하고, 식사를 거를 정도로 깊은 고통을 겪으며 눈물을 흘려야 했습니다. 본 장면에서 한나는 하나님을 향한 깊은 신앙을 지녔을 뿐만 아니라, 대화 방식에서도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배려를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2) 또한 이 장면은 단순히 불임의 고통을 극복하고 자녀를 얻은 한 여성의 개인적인 사건을 넘어, 엘리 가문의 지도력이 쇠퇴하고 사무엘을 통해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는 서사적 전환점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이 변화의 중심에는 한나의 주체적인 신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남편의 동의 없이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서원하였으며, 직접 아들의 이름을 짓고 아들을 봉헌하기 위해 성소로 데려갔습니다. 또한 봉헌을 위한 제물을 직접 마련했을 뿐만 아니라, 당시 여성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으로 봉헌 제사를 위한 제물 도살에도 참여하였습니다. 사무엘을 제사장에게 맡기기 위해 한나와 엘리가 엘리를 찾아갔을 때, 아들을 봉헌하겠다고 말하는 이는 남편 엘리가 아니라 한나 자신이었습니다. 한나는 사람에 대한 세심한 배려와 존중을 실천하면서도, 주체적인 신앙을 바탕으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새로운 시대를 여는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인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2. 사무엘상 14:44

2.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 ⁵	וַיֹּאמֶר שָׁאוֹל פֶּה יַעֲשֶׂה אֱלֹהִים וְלֹהֶ תִּסְף בַּי מֹת תִּמְתַּחֲזֶנָּךְ:
『개역개정』	사울이 이르되 <u>요나단아 네가 반드시 죽으리라</u> 그렇지 않으면 <u>하나님이 내게 별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u> 하니
『새번역』	사울이 선언하였다. “ <u>요나단, 너는 죽음을 피할 수 없다.</u> 내가 너를 처형하지 않는다면, <u>하나님이 나에게 천별을 내리시고 또 내리실 것이다.</u> ”
『공동개정』	사울이 “ <u>어떤 일이 있어도 너 요나단은 사형이다.</u> ” 하고 선언하였다.
『새한글』	사울이 말했다. “ <u>하나님이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고 싶은 대로 별하시기 바란다. 네가 정말로 죽어야겠구나, 요나단아.</u> ”
ESV	And Saul said, “ <u>God do so to me and more also; you shall surely die, Jonathan.</u> ”
NET ²	Saul said, “ <u>God will punish me severely if Jonathan doesn't die!</u> ”
ZB	Und Saul sprach: <u>Gott soll mir antun, was immer er will!</u> Ja, <u>du musst sterben, Jonatan.</u>
LB	Da sprach Saul: <u>Gott tue mir dies und das; Jonatan, du musst des Todes sterben!</u>
BB	Da sagte Saul: » <u>Gott soll mir antun, was immer er will!</u> <u>Jonatan, du musst sterben!</u> «

2.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어순

① 이 구절은 발화소개부(사울이 말했다)와 직접인용(사울의 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새한글』은 문장의 두 부분을 명확하게 구분하였으며, 전체 구절을 원어 성서의 어순에 따라 번역하였습니다.

② 사울의 직접화법은 맹세를 할 때 사용하는 관용적 표현입니다. 맹세 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는데, 앞 문장에서 항상 하나님을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뒤따르는 종속 문장에서 반드시 특정한 일이 일어날 것임을 염속

하게 서약하는 형식을 취합니다.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맹세 내용을 먼저 언급한 후, ‘~하지 않으면’이라는 조건절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새한글』은 히브리어 원문의 어순을 그대로 유지하여 번역하였습니다.

(2) 번역어

① כִּי יִשְׁשָׁה אֶלְהִים וְכֹה יֹצִיף (코 야아세 엘로힘 배코 요십)

『개역개정』 및 『새번역』, 그리고 NET²는 이 구문이 맹세를 어긴 자에게 저주를 내리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역할을 암시한다고 보고 이를 다양한 방식으로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개역개정』은 ‘벌을’이라는 단어를 작은 글자로 추가하여 원문에 없는 표현임을 명확히 표시하였습니다. 『새번역』은 ‘천벌’이라는 단어를 명시적으로 사용하여 의미를 강조하였습니다. 『새한글』은 원문을 충실히 번역하면서도 ‘벌하시기 바란다’를 추가하여 관용 구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전달하고자 하였습니다. 『공동개정』은 관용 표현의 용법을 고려하여 보다 의역적인 접근을 취하였습니다. 한편, ESV, ZB, BB는 ‘벌’이라는 단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고, 원문의 동사 그대로 ‘행하다 (do, antun)’는 단어로 번역하였습니다.

② כִּי מוֹת תְּמִוָּת יָנִין (키 모트 타무트 요나탄)

이 문장은 동사의 형태적 반복(부정사 강조 용법)을 통해 요나단의 사형 집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새한글』 번역은 원문의 어순을 유지하여 이러한 강조점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사울의 발언은 요나단의 처형이 불가피하다는 점과 이에 대한 그의 단호한 태도를 보여줍니다.

③ 요나단을 사형에 처하지 않을 경우 벌을 받는 대상에 대해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내게/나에게’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ESV, NET², ZB, LB, BB도 모두 맹세를 한 사울 자신이 형벌을 받을 대상임을 명확하게 나타내 줍니다. 『공동개정』과 『새한글』은 원문에 없는 이 표현을 추가하지 않았습니다.

2.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어순

한국어에서 맹세문은 “만약 ~하면, ~일 것이다”와 같이 조건절 다음에 귀결절이 오지만, 히브리어에서는 먼저 귀결절이 오고 다음에는 두 가지 형태가 나타납니다. םִנְיָה(임)으로 시작하는 조건절 형태가 오든가(삼상 3:17; 25:22; 삼하 3:35; 19:13[14]), 또는 כִּי(키)로 시작하는 선언문 형태가 나타납

니다(삼상 14:44; 20:13).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한국어 구조를 그대로 반영하여 조건문을 앞에 두었습니다. 『새한글』은 히브리어 어순을 그대로 드러내면서 ❷(키)로 시작하는 문장을 선언문으로 번역하였습니다(ESV, NET², ZB, LB, BB).

(2) 번역어

❶ כִּי יְעַשֶּׂה אֱלֹהִים וְכֹה יַעֲשֶׂה(코 야아세 엘로힘 배코 요십)

직역하면 ‘So God will do and so he will add’,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고, 또 저렇게 더하시기를 (바란다)’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어 원문의 문자적 형태만으로는 이 표현이 하나님께서 정확히 무엇을 행하실 것을 바라는지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또 그 행위가 긍정적인지 부정적인지도 분명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만일 … 한다면/하지 않는다면 천벌을 받을 것이다”와 같은 한국어의 관용구가 보여주듯이 모든 맹세는 명시적이든 암묵적이든 신의 제재를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새한글』은 ‘별하시기 바란다’라는 표현을 추가하여, 이 관용구의 쓰임을 명확히 드러냈습니다.

❷ 칠십인역과 불가타, 그리고 시리아역이나 아람어역과 같은 고대 번역본들은 히브리어 본문에 없는 ‘나에게’라는 단어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맹세문이 맹세하는 자가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신의 벌을 감수하겠다는 자기 저주의 형태를 띠기 때문입니다. 영어·독일어 성경이 모두 ‘하나님이 나를 별주실 것이다’(NET²),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기를 바란다’(ESV, ZB, LB, BB)라고 번역한 것은 이 관용구의 내포된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려는 시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새한글』번역은 히브리어 원문에 없는 히브리어 ‘ך(리, ‘나에게’)를 추가하지 않고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하였습니다. 본문에 직설적으로 표현된 사울의 맹세 형식을 그대로 반영하였습니다.

2.4. 『새한글』 사무엘상 14:44의 가르침

사울의 이 맹세는 전쟁의 맥락에서 나온 것입니다. 필리스티아와 전투하던 중, 사울은 병사들이 극도로 지치고 허기진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금식을 선포하며, 이를 어길 경우 저주를 받을 것이라 맹세하게 합니다(삼상 14:24). 특히 당시가 ‘온 땅에 벌집이 많은 시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금식을 강요했다는 점에서, 그의 결정은 전략적으로도 비효율적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맹세의 자리에는 없었던 요나단은 이 금지령을 알지 못한 채 꿀을 먹었고, 이후 사울은 하나님의 응답을 받지 못하자,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제비뽑기를 시행합니다. 사울은 제비뽑기 결과가 자신의 아들 요나단에게 나오더라도 그대로 따르겠다고 맹세합니다(14:39). 결국 요나단이 지목되었고, 그가 사울의 금식령을 어겼음이 밝혀지자, 사울은 자신이 이미 여호와의 이름을 걸고 선언한 바대로 요나단이 반드시 죽어야 한다고 거듭 맹세합니다(14:44). ‘하나님께서 이렇게든 저렇게든 하시기를 바란다’라는 표현은 단순한 진실의 입증을 위한 언급이 아니라, 특정 사건에 대한 개인적 책임을 지겠다는 선언적 의미를 갖습니다. 일반적으로, 맹세자는 자신이 명시한 조건을 수행하지 못할 경우 신의 저주를 감수하는 존재로 스스로를 지정합니다(삼상 14:44; 20:13; 25:22, 삼하 3:35; 19:13[14] 참고). 그러나 이 장면에서 사울은 요나단의 처형을 강력하게 주장하면서도, 만약 이를 실행하지 않을 경우 누구에게 신의 벌이 임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언급하지 않습니다. 이는 그의 맹세가 진정한 현신이 아니라, 형식적인 표현에 불과함을 시사합니다. 사울은 금식 맹세를 어긴 요나단을 처형하겠다는 강한 의지를 반복적으로 드러내지만, 정작 그 책임이 자신에게 돌아오는 것을 회피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지도자로서의 그의 한계를 보여줍니다.

사울의 판단력 부족과 책임 회피 성향은 다음 장에서도 확인됩니다. 그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바로잡기보다는, 오히려 백성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며 자신의 실패가 하나님의 명령을 온전히 수행하지 못한 것 때문이 아님을 변명합니다(15:15, 24). 이러한 태도는 지도자로서의 그의 부족함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며,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는 결정적인 원인으로 작용합니다. 맹세 구문 하나만 보더라도 사울의 내면과 신앙이 드러납니다. 그의 말 속에는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과 맹세를 수단적으로 사용하는 태도가 반영되어 있으며, 이는 지도자로서의 그의 근본적인 결함을 보여줍니다. 사울의 사례는 참된 지도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신학적으로 숙고하게 만드는 중요한 본보기라 할 수 있습니다.

3. 사무엘상 20:9

3.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⁵

וַיֹּאמֶר יְהוָה צְבָאֹת קֹבֶד כִּי אָמַר יְהוָה צְבָאֹת כִּי כָּלְתָה הָרָעָה
מְעַמֵּם אָבִי לְבֹא עַלְךָ וְלֹא אָתָה אָגִיד לְךָ:

『개역개정』	요나단이 이르되 <u>이 일이 결코 네게 일어나지 아니하리라</u>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확실히 결심한 줄 알면 내가 네게 와서 그것을 네게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하니
『새번역』	요나단이 대답하였다. “ <u>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u> . 우리 아버지가 자네를 해치려는 결심을 한 줄을 알고서야, 내가 어찌 그것을 자네에게 곧 알려 주지 않겠는가?”
『공동개정』	“ <u>천만에!</u> ” 하면서 요나단이 말하였다. “만약 우리 아버님이 자네를 해치려고 마음 잡수신 것을 알게 된다면, 내가 어찌 자네에게 알려주지 않겠는가?”
『새한글』	요나단이 말했다. “ <u>그런 일은 자네에게 결코 있을 수 없네!</u> 아버지가 자네에게 나쁜 일이 닥치게 하려고 맘 먹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고 하세. 그러면 그것을 자네에게 내가 알려 주지 않겠는가?”
ESV	And Jonathan said, “ <u>Far be it from you!</u> If I knew that it was determined by my father that harm should come to you, would I not tell you?”
NET ²	Jonathan said, “ <u>Far be it from you</u> to suggest this! If I were at all aware that my father had decided to harm you, wouldn’t I tell you about it?”
ZB	Und Jehonatan sagte: <u>Das sei fern von dir!</u> Denn wenn ich Gewissheit darüber habe, dass bei meinem Vater beschlossen ist, dass das Unheil über dich kommt, wie könnte ich es dir dann nicht berichten?
LB	Jonatan sprach: <u>Das sei ferne von dir</u> , dass ich es dir nicht sagen sollte, wenn ich weiß, dass bei meinem Vater beschlossen ist, Böses über dich zu bringen.
BB	Daraufhin sagte Jonatan: » <u>Nie und nimmer soll dir das geschehen!</u> Auch gebe ich dir ganz bestimmt Bescheid, wenn ich in Erfahrung bringen sollte: Das Unheil, das dir droht, ist bei meinem Vater eine beschlossene Sache.«

3.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개별 표현 번역

① חָלַילָה(할릴라)

『개역개정』의 ‘이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아니하리라’는 미래에 대한 강한

부정을 나타냅니다. 『새번역』의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는 화자와 청자 사이의 관계를 고려한 친근한 어조입니다. 『공동개정』의 ‘천만에’는 다소 감정이 실린, 즉각적인 반응을 잘 나타내줍니다. 『새한글』의 ‘그런 일은 결코 있을 수 없네’는 단호한 느낌을 줍니다.

② **ך**(락크)

『새번역』과 『공동개정』은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3.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히브리어 **חֶלְלָה**(할릴라)는 ‘더럽히다, 모독하다’를 뜻하는 동사 **חָלַל**(할랄)에서 파생한 것으로, ‘신성모독’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저주 맹세로 사용됩니다. 이는 앞에서 본 **כִּי יְשַׁעַת אֱלֹהִים וְכִי יַסְרֵף**(코 야아세 엘로 힘 베코 요십) 형태와 같은 조건적 저주가 아니라, 감탄사적 표현으로서 어떤 사실을 선언하는 형태입니다. 구약성경에서 『새한글』(할릴라)은 대체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대화에서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삼상 2:30).

(2) 아래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새한글』(할릴라)은 단독으로 쓰일 때도 있지만 대체로 전치사 **ל**(르)가 뒤따르며 이는 누구에 대한 모독인지를 드러내줍니다. 『새한글』은 모든 용례에서 전치사구의 유무를 분명히 번역하고 있습니다.

구절	『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	『새한글』
① 삼상 2:30 חֶלְלָה לִי (할릴라 리)	(내가)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다.	이제 분명히 말해 두거니와 <u>나는</u> 그 약속을 철회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u>나한테는!</u>
② 삼상 20:2 חֶלְלָה (할릴라)	결단코 아니라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그럴 리가 있나?	있을 수 없는 일이야.
③ 삼상 20:9 חֶלְלָה לְךָ (할릴라 라크)	이 일이 결코 <u>네게</u> 일어나지 아니하리라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걸세.	천만에!	그런 일은 <u>자네에게</u> 결코 있을 수 없네!
④ 삼상 22:15 חֶלְלָה לְךָ (할릴라 리)	결단코 아니니이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천만부당한 말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u>제게는!</u>

3.4. 『새한글』 사무엘상 20:9의 가르침

사무엘상 20장은 사울의 반복된 살해 시도로부터 도피한 다윗이 요나단과 대화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1-23절). 이 대화에서 요나단은 **חַלְלָה**(할릴라)라는 표현을 두 차례 사용합니다(2, 9절).

(1) 첫 번째 사용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기에 자네 아버지가 내 생명을 노리는가?’(1절)라고 항변하는 장면에서 나타납니다. 이에 요나단은 단호하게 응답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야!(**חַלְלָה**[할릴라]) 자네는 죽지 않아’(『새한글』). 요나단은 다윗이 죽임을 당하는 것은 신성모독과 다름없으며, 결코 일어날 수 없는 일이라고 강하게 부정합니다. 동시에 그는 아버지 사울 왕이 자신에게 알리지 않고 다윗을 해칠 리 없다고 주장하며, 아버지를 변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입니다(2절). 그러자 다윗은 사울이 요나단을 배려하여 자신의 계획을 알리지 않았을 것이라며 반박합니다(3절). 그리고 이에 대비하여 다윗은 요나단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과 맺은 언약을 상기시키면서(8상반절), 만약 자신에게 잘못이 있어 요나단이 결국 자신을 사울에게 넘길 생각이라면, 차라리 그의 손에 죽여달라고 간청합니다(8하반절). 이는 ‘네가 나와 언약을 맺었다고는 하지만, 결국 너는 사울의 아들이니 나를 네 아버지에게 넘기지 않겠느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2) 이때 요나단은 다시 한 번 **חַלְלָה**(할릴라)로 응답합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2절에서와는 달리 **ךָלָק**(라크)를 덧붙입니다. ‘그런 일은 자네에게 결코 있을 수 없네.’ 맥락을 반영하여 표현하면, ‘네가 만일 내가 너를 배신할 것이라고 의심한다면, 너 스스로 신성모독을 범하는 것이 될 것이야!’라는 의미입니다. 즉, 요나단은 다윗이 자신을 의심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태도이며, 언약을 맺은 관계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요나단의 반응은 단순히 다윗의 말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의 태도에 내포된 모순을 강하게 지적하는 것입니다. **ךָלְלָה**(할릴라 라크)라는 표현을 통해 요나단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맺어진 관계를 의심하는 것이야말로 신앙적으로 올바르지 않음을 강조합니다. 요나단의 이러한 단호한 반응은 다윗에게 확신을 주며, 자신이 결코 다윗을 배신하지 않을 것이며, 끝까지 신의를 지킬 것이라는 강한 서약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윗에 대한 저주의 의미까지 내포한 요나단의 격한 발언은 다윗으로 하여금 즉시 의심을 버리고 요나단의 변함없는 사랑과 신의를 확신하게 만듭니다. 이후 이야기는 요나단을 향한 다윗의 신뢰가 결코 흔들리지 않

음을 보여줍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요나단의 격한 반응은 그가 하나님 안에서 맺어진 인간관계를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잘 드러냅니다. 요나단에게 있어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변치 않는 신앙적 서약이며, 그로 인해 그는 다윗을 끝까지 보호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4. 사무엘하 15:24

4.1. 히브리어 본문, 한글, 영어, 독일어 번역본들 몇 가지 옮겨 적기

BHS⁵

וְהַנֶּה נְמַצֵּךְ וְכָל-הָלִילִים אֲחָת אַרְוֹן בְּרִית הָאֱלֹהִים
וַיַּצְקֹן אֲתָאָרְוֹן הָאֱלֹהִים וְעַל אַבְיוֹתָר עֲדִיתָם כָּל-הָעָם לְעַבְור
בָּרוּךְ שֵׁם:

『개역개정』

보라 사독과 그와 함께 한 모든 레위 사람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어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고 아비아달도 올라와서 모든 백성이 성에서 나오기를 기다리 도다

『새번역』

그런데 그 곳에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메고 온 모든 레위 사람과 함께, 사독도 와 있었다. 그들은 거기에 다가 하나님의 궤를 내려놓았다. 아비아달도 따라 올라와서, 다윗의 부하가 도성에서 나아와서, 왕의 앞을 모두 지나갈 때까지 거기에 있었다.

『공동개정』

하느님의 계약궤를 멘 레위인 일행 가운데는 사독도 있었다. 그들은 온 백성이 성에서 나와 개울을 건너기 를 기다리느라고 하느님의 궤를 에비아달 옆에 내려놓고 있었다.

『새한글』

그런데, 저기, 또한 사독이 있는 것이 아닌가! 모든 레위 사람들이 그와 함께 있었다. 하나님의 언약상자를 메는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하나님의 상자(궤)를 내려놓았다. 그러자 아비아달이 올라왔다. 마침내 온 백성이 완전히 도시에서 빠져나왔다.

ESV

And Abiathar came up(아비아달이 올라왔다), and behold, Zadok came also(보라, 사독도 왔다) with all the Levites, bearing the ark of the covenant of God. And they set down the ark of God until the people had all passed out of the city.

NET ²	<p>Zadok and all the Levites who were with him were carrying the ark of the covenant of God. When they positioned the ark of God, Abiathar offered sacrifices until all the people had finished leaving the city.</p>
ZB	<p>Und sieh, da waren auch Zadok und mit ihm alle Leviten, sie trugen die Lade des Bundes Gottes. Und sie liessen die Lade Gottes nieder, und Ebjatar brachte Opfer dar, bis alles Volk aus der Stadt vorübergezogen war.</p>
LB	<p>Und siehe, Zadok war auch da und alle Leviten, die bei ihm waren, und sie trugen die Lade des Bundes Gottes und stellten sie nieder. Und Abjatar brachte Opfer dar, bis das ganze Kriegsvolk aus der Stadt vorübergezogen war.</p>
BB	<p>Auch Zadok war da mit allen Leviten. Die hatten die Bundeslade Gottes getragen. Jetzt stellten sie die Lade Gottes ab. Dann brachte Abjatar Opfer dar, bis alle Leute aus der Stadt vorbeimarschiert waren.</p>

4.2. 『새한글』에서 새로운 점들

(1) 어순

사무엘하 15:24는 비교적 긴 문장입니다. 『개역개정』은 하나의 문장으로, 『새번역』은 세 개의 문장으로, 『공동개정』은 두 개의 문장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반면, 『새한글』은 여섯 개의 단문으로 표현하여 가독성을 높였습니다.

(2) 번역어

① **ונחנָה גַּם־צָדָוק** (웨 헌네 감-차독)

이 구절은 문장 첫머리에서 사독의 도착을 부각합니다. 그러나 『새번역』과 『공동개정』에서는 사독이 비교적 뒤에서 언급됩니다. 반면 『새한글』은 사독의 존재에 대한 놀랄과 강조를 최대한 살리는 방식으로 번역하였습니다.

② **בְּרִית הָאֱלֹהִים אֶרְון חָלָקָה** (아론 베렛 하엘로힘) 과 **אֶרְון חָלָקָה** (아론 하엘로힘)

전통적인 번역어 ‘하나님의 언약궤’ 또는 ‘하나님의 궤’(『개역개정』, 『새번역』, 『공동개정』)를 『새한글』에서는 ‘궤(櫃)’보다 친근한 ‘상자(箱子)’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현대 독자들에게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③ **אַבְיַתָּר וְיַעַל** (와야알 에브야타르)

『개역개정』과 『새번역』은 본 구절을 ‘아비아달도 올라왔다’는 의미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ESV 또한 동일한 해석을 채택하였으나, 해당 문장을 구

절의 맨 앞에 배치하며 민수기 4:15를 참고하도록 지시합니다. 이 구절을 ‘진영이 길을 나설 때’ 상황으로 보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다른 영어·독일어 성경(NET², ZB, LB, BB)은 한결같이 ‘아비아달이 제사를 드렸다’는 의미로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새한글』은 ‘아비아달도 올라왔다’로 번역하면서, ‘아비아달이 제사를 드렸다’는 또 다른 번역 가능성을 각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동개정』은 נִזְזָן(와야알)을 동사가 아니라 전치사로 간주하여 ‘아비아달 옆에’라고 완전히 다른 의미의 번역을 하였습니다.

4.3. 『새한글』에서 새롭게 번역한 까닭

(1) 어순

히브리어 문장은 명사문장 + 명사문장 + 분사구 + 동사문장 + 동사문장 + 관계부사절, 총 여섯 개의 요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원문이 장문이기 때문에 『새한글』은 각 문장을 개별적으로 번역하여 보다 짧고 이해하기 쉽게 구성하였습니다.

(2) 번역어

① גַּם־צָדוֹק (웨 힌네 감-차독)

첫 번째 단어 **הִנֵּה**(힌네)는 주의를 끌거나 놀라움을 나타내는 감탄사입니다. 특정 사건이나 대상에게로 시선을 돌리게 하는 기능을 하며, ‘여기 있다’는 존재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צָדוֹק**(차독) 앞에 붙은 단어 **גַּם**(감, ‘또한’)은 예상하지 않은 사독의 등장을 강조합니다. 『새한글』은 이러한 이중적인 놀람을 구어적이고 현장감 있게 표현하여 독자들이 더욱 생동감 있게 느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 וַיַּעַל אַבְיַהָּר (와야알 에브야타르)

한글성경은 대부분 ‘아비아달이 올라왔다’는 의미로 번역합니다. 그러나 『새한글』에서는 ‘제물을 바쳤다’는 번역 가능성을 각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와우연속미완료형 נִזְזָן(와야알)에서 그 어근 **נִזְזָן**(알라)의 칼(일반형)과 히필(사역형) 형태가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히필형으로 번역할 경우 ‘제단에 희생제사를 드리다’는 의미가 됩니다(HALOT). 따라서 대부분 영어·독일어 성경(NET², ZB, LB, BB)이 번역하는 것처럼 제사장 아비아달이 다윗과 그의 백성의 무사 안위를 기원하며 제사를 드렸을 가능성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의 상자(궤)를 내려놓았다’, ‘마침내 온 백성이 완전히 도시에게 빠져나왔다’는 앞뒤 문맥을 고려하면, 이 장면은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이 요르단강을 건널 때, 언약상자를 멘

제사장들이 요르단강 한가운데 서 있었던 상황을 연상하게 합니다(수 4:10). 따라서 이러한 문맥을 고려한다면, 이 구절이 제사를 드리는 상황을 묘사하기보다는, 다윗을 따르는 모든 백성이 안전하게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 과정을 서술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4.4. 『새한글』 사무엘하 15:24의 가르침

이 구절은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란으로 인해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도피하는 장면을 묘사합니다. 당시 온 나라가 통곡하였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뒤따랐습니다.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넜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서 봉사해야 할 제사장 사독도 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레위 사람들이 함께하였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있었습니다. 도피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언약상자가 함께 있다는 사실은 다윗에게 더할 수 없는 위안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다음 구절에서 다윗은 사독에게 하나님의 언약상자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도록 명령합니다. 이는 사무엘상 4장에서 이스라엘이 필리스티아와의 전투에서 패색이 짙어지자, 실로 성소에서 언약상자를 전장으로 가져오도록 했던 사건과 큰 대조를 이룹니다. 당시 언약상자가 이스라엘 전영에 도착하자 군대는 크게 환호하였고, 필리스티아 사람들은 두려움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임재를 보장하는 주술적 도구로 언약상자를 사용하려 했을 때, 결국 그들은 언약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크게 패배하였습니다. 이에 반해, 다윗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언약상자를 예루살렘에 남겨두기로 결정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다면 다시 언약궤와 그 거처를 볼 수 있을 것이라 믿으며,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의 뜻에 맡깁니다. 다윗의 이러한 태도는 하나님을 주술적 보호막으로 삼으려는 신앙과 차별되며,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것이 참된 신앙임을 보여줍니다.

<주제어>(Keywords)

사무엘상 1:26, 사무엘상 14:44, 사무엘상 20:9, 사무엘하 15:24.

1 Samuel 1:26, 1 Samuel 14:44, 1 Samuel 20:9, 2 Samuel 15:24.

(투고 일자: 2025년 2월 28일, 심사 일자: 2025년 3월 25일, 게재 확정 일자: 2025년 4월 1일)